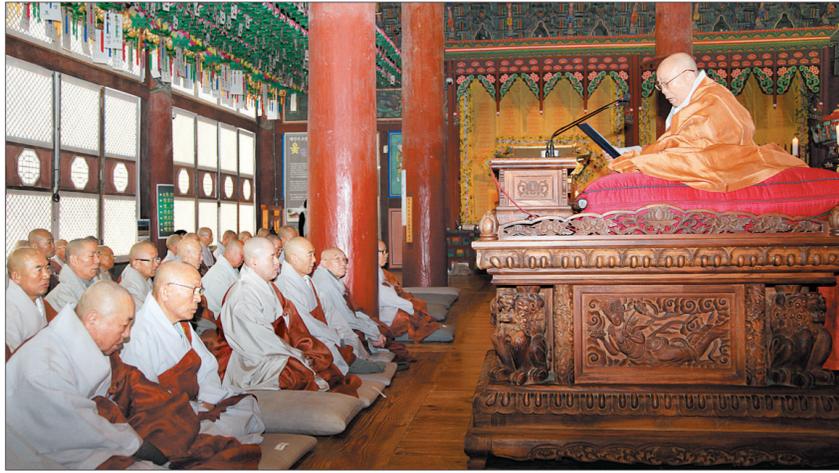


## “운력과 작무로 자생력 갖추라”

법전 중정예하, 6일 신년교시 내려  
 “모든 종도는 安民의 淨土 위해 정진”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신년하례법회에서 법전 중정예하가 신년교시를 내리고 있다. 해인사=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조계종 법전 중정예하가 운력(運力)과 작무(作務)를 통해 한국불교의 자생력을 기를 것을 당부하는 신년교시를 내렸다. 법전 중정예하는 지난 6일 해인총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불기 2555년 신년하례법회에서 “백장산사의 운력과 작무는 수행과 노동의 일체화로 새로운 종풍을 선양함으로써 중원의 법난 속에서도 선종이 우뚝 솟은 힘이 됐다”며 “신묘년 새해에는 운력과 작무를 통한 자생력으로 이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커다란 자비심을 내어 심기일전하는 원년을 만들도록 하자”고 가르침을 내렸다. 이는 한국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지원금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운력과 작무라는 불교전통을 되살림으로써 불교 스스로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한다는 변화와 쇄신을 강조한 가르침이다.

이를 위해 ‘순수한 지름길’이 아닌 ‘정로(正路)’를, ‘별도의 불조의 서래의(西來意)를 찾을 것’이 아니라 ‘자등명의 유희를 자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전 중정예하는 “작금의 방편에 의탁한 질러 가는 길 선회는 순수한 지름길만 찾게 돼 마땅히 밟아야 할 정로를 회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등명의 유희를 받고 따로 불조의 서래의를 찾는 어리석음을 자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전 중정예하는 지난 해 12월 27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민족문화수호운동 등 종단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잘못된 사람을 꾸짖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법전 중정예하는 “전도된 망상과 보편성이 결여된 신념에 대한 집착은 세상을 치유할 수도 없고 또 구원할 수도 없다”고 전제한 뒤 “치우친 이는 자신을 바로 잡아 원만함을 이루도록 하고 막히고 걸린 이들은 대승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계종 33대 집행부의 민족문화수호운동에 힘을 실어줬다.

법전 중정예하는 이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세간법(世間法)은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周知)하는 바”라며 정부 여당의 친박관 민족문화수호 의지를 질타했다. 법전 중정예하는 마지막으로 힘들 때 일수록 중단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내렸다. 법전 중정예하는 “모든 종도는 1700년 동안 같은 배를 타고 고해를 건너왔다”면서 “과도가 험난할 때마다 도선인과 함께 일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으니 이제 만년토록 안민의 정토를 위해 더욱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중정예하께서 현재를 아우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귀중한 가르침을 내려주셨다”면서 “총무원 33대 집행부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쇄신을 인내심을 갖고 이뤄내 종단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법전 중정예하와 함께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지혜스님, 차석부의장 밀운스님, 원로의원 성수·원명·명선·혜승·정무·법흥·혜정·월파·종하·월탄스님 등 12명의 원로의원 스님이 동참해 종단 화합과 한국불교 발전을 염원하는 원력을 몸소 보여 주었다. 해인사=박민덕 기자

### 신년교시(전문)

백장산사의 운력(運力)과 작무(作務)는 수행과 노동의 일체화로 새로운 종풍을 선양함이니, 이는 중원(中原)의 법난 속에서 선종이 우뚝 솟은 힘이었습니다.

작금의 방편에 의탁한 ‘질러 가는 길’만 선호하는 것은 순수한 지름길만 찾게 되어 마땅히 밟아야 할 정로(正路)조차 회피하니 아상(我相)의 허물만 수미산보다 높아져 본래자리에서 멀리 일탈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으려는 자등명(自證明)의 유희를 버리고 따로 불조(佛祖)의 서래의(西來意)를 찾고자 한다면 황하의 누런 물이 맑아지길 기다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하여 세간법(世間法)은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周知)하는 바입니다.

전도(顛倒)된 망상과 보편성이 결여된 신념에 대한 집착은 세상을 치유할 수도 없고 또 구원할 수도 없을 것이니, 치우친 이는 자신을 바로잡아 원만함을 이루도록 하고 막히고 걸린 이들은 대승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종도는 천천백년동안 같은 배를 타고 고해(苦海)를 건너 왔습니다. 과도가 험난할 때마다 도선인(導船人)과 함께 일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으니 이제 만년토록 안민(安民)의 정토(淨土)를 위하여 더욱 정진 합시다.

신묘년 새해에는 운력과 작무를 통한 자생력(自生力)으로 이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커다란 자비심(求世大慈)을 내어 심기일전(心機一轉)하는 원년(元年)을 만들도록 합시다.

2555(2011)년 1월 6일 해인사 퇴설당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중정 도림 법전

### 社告

#### 불교신문이 내실 있게 변합니다

‘한장의 불교신문,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모토로 50여 년을 정법홍포에 매진하고 있는 불교신문이 신묘년(辛卯年) 토끼해를 맞아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 2회 발행하고 있는 불교신문은 토요일자와 수요일자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자에는 생활·건강면과 현대문화, 영화 속 도량을 찾아서, 수요일인터뷰 등의 면을 신설하고 고리면을 일신해 독자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몸에 이로운 사찰음식 7면**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몸에 이로운 사찰음식’ 코너를 신설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찰음식을 소개 합니다. 전국 산사에서 요리되고 있는 사찰음식을 소개해 수행에 약이 되는 음식을 독자여러분들께 배달해 드립니다.
- 일아스님의 법구경이야기 8면** 미국에 주석하고 있는 일아스님이 초기경전인 <법구경>을 자세하게 풀어냅니다. 45년간 설법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오래된 경전인 <법구경>에 담겨 있는 지혜를 세계 각국에서 공부한 스님이 쉽게 풀어냅니다.
- 현진스님의 이야기 산스크리트 8면** 현재 인도에 유학중인 스님이 산스크리트어에 담겨 있는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을 독자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마카바드카타> <붓다짜리파> <우파니샤드> 등 경전을 인용해 인도문화와 불교용어의 유래를 심도 있게 풀어냅니다.
- 김재성 교수의 불교와 심리치료 8면** 불교의 가르침, 특히 참선수행을 통한 심리치료는 우리사회에서도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심리학의 접목은 오랫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불교와 심리학에 정통한 김재성 교수의 심도깊은 강의는 불자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될 것입니다.
- 영화 속 도량을 찾아서 10면** 문화영역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화 속에 비춰진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 유명영화를 촬영했던 사찰을 찾아 스크린 속에 담겨 있는 불교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사진 전문가의 앵글에 담긴 고즈넉한 산사의 분위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수요일인터뷰 17면**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문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찾아갑니다. 다사다난한 현대사회는 인드라마 그물처럼 맞물려 수많은 사회 병리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실타래를 헤당 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풀어내는 인물을 만나 봅니다.
- 산사에서 온 편지 18면** 일선 수행현장에서 포교하는 스님들의 잔잔한 이야기를 지면에 옮겨 놓습니다. 이별 때는 최중우돌, 이별 때는 감동적인 수행과 포교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 문태준의 詩心 19면** 젊은 시인, 시인들이 인정한 ‘시 잘 쓰는 시인’으로 차세대 한국시단을 이끌어 갈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문태준시인이 해석해 내는 시세계를 연재합니다. 시인 특유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시인은 독자여러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환경부 국립공원 입장료 부활 추진

불교계 “이용위주 체계 벗어나야” 비판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불교계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4일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탐방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립공원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입

장료 징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3월경 국립공원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가 나오면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 주경스님은 “당시 입장료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이나 국민들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입장료를 폐지해 불교계의 혼란만 가중했다”면서 “관리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추진하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인 부산대 교수도 “단순히 탐방객의 이용 위주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이 시대의 유산이라는 보존주의의 중장기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 社告

#### 불교신문·한국불교종단협의회·한국불교기자협회 공동캠페인

올해는 불기 2555년입니다.

올해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 법을 펴시고 입멸하신지 2555년이 된 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은 표기방식입니다. 불자들이 불교행사와 서식에 서기를 남용하기 말고, 불기를 사용함으로써 불자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세워나갑시다.

**· 캠페인 제안**

- 1) 사찰 내부 문서와 각종 홍보물에 불기를 사용합니다.
- 2) 사찰 외부 행사에는 서기를 부기에 사용합니다.

## 대한불교조계종이 추천하는 재향군인회 상조회

불자님의 상조피해를 막고자 종단에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에 지금 가입하십시오

조계종이 보증하는 유일한 번호 | 상담 시 다니시는 사찰 명을 말씀해주세요

# 무료상담 080-888-5000

850만 역전의 용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00% 출자 상조**

- 경제적인 상조** 서비스도 용품도 시중보다 저렴합니다
- 편리한 상조** 복잡한 장례절차를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 한결같은 상조** 물가가 올라도 추가 부담 없습니다

불자님을 위한 상조- **재향군인회 상조회**

중요정보 고시사항 1.종도회유원금 및 환급기준 기.표준약관 제15조 제 규정에 의한 나.환급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환급 다.만기3개월 후 해지시 납입금액의 100% 환급 2.소비자분쟁시 분쟁의 해결기준 공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한 3.주요재정상품 및 서비스 내용 가.수익 환급 제도에 소도되는 원시의 종류 및 원산지 \* 원시의 종류: 대대 100% (중국산)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사명 수제직(국내산) 나.관의 재질 \* 두께 및 원산지 \* 매장시: 오동나무(중국산) 3~4.5cm \* 화장시: 오동나무(중국산) 1.8~3cm 다.차림의 종류 - 윤구리무단-원단(2006년 이상) - 장의버스-현대,기아(2006년 이상) \* 추가비용: 상복류 기본 무로제공 이외 가리 추가시 10cm당 윤구리버스16,000원 리무진 18,000원 \*차량 및 비용은 차량차량 및 행사차량에 따라 차이를 있을 수 있음 로.도움이 추가시:인당 8만원(10시간 제공, 2009년 기준) 4.재향군인회 상조회 현황 (2010년 3월 10일 기준) 가.상조관리자:신 19,965,615천원 총 고령:한글의류 15,400,603천원(공민회계사의 회계검토를 받았음) \*회림회계법인) 5.고령보험금의 관리방법 고령보험금의 35.8%는 별도의 계정으로 농협 4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도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